

추경 2160억 확보, 석달만에 지원재개... 기업당 인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개편안

고용부, 20일부터 신규접수
고용기간 1개월→6개월로

기업규모 100인 이상인 경우
3번째 채용부터 연 900만원

정부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기업당 지원 한도를 기존 90명에서 30명으로 축소하고,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정규직 처럼 단계별 지원금을 타내는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6개월의 고용 유지 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 개편과 함께 지난 5월 10일 일시 중단했던 신규 신청 접수를 오는 20일부터 재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는 노동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처음 도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는 지난 5월 10일 예산 고갈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청이 중단됐었다.

정부는 지난 2일 2162억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면서 오는 20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재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은 총 4만 7294곳이며, 이에 따른 추가 채용 인원이 24만 3165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용부는 신청 접수 재개와 동시에 그동안 사업집행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우선 그동안 기업당 최대 90명분까지 지원하던 것을 최대 30명분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한도를 대폭 축소했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청년 채용을 충분히 유도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했지만 소수의 중견기업에만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많은 소규모 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업당 지원금 수령 한도를 3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채용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사실상 1개월 고용 유지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이런 요건을 악용해 계약직을 채용하면서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장려금을 타내는 사례가 잇따랐다.

고용부는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6개월의 고용유지 요건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하고 있을 때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지난 2월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7월까지 재직한 이후 8월에 임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 양정열 청년고용기획과장은 "정규직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근무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기업 규모별로 지원방식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했다. 기존에는 30~99인 기업은 2명을 채용하면 2명 채용 인원 몫인 연 1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 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명 채용 인원 몫으로 시작해 연 900만원씩을 지원하고,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개편 → 8월20일부터 재접수 시작

	현행	개편
기업당 지원 한도	매월 최대 90명 중견기업 과다 지원!	매월 최대 30명 소규모기업 지원!
최소고용 유지기간	최소 1개월	최소 6개월 이상
기업규모별 차등	30인 미만 1명 부터 채용인원 모두 지원	현행과 동일
	30~99인 2명 부터 채용인원 모두 지원	2번째 채용인원부터 연 900만원씩
	100인 이상 3명 부터 채용인원 모두 지원	3번째 채용인원부터 연 900만원씩
신규 성립 사업장	신규 성립 후 다음 달 채용자부터 모두 지원	성립월 말 기준 5인 미만 ~3명 5~9인 미만 ~6명
기타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3개월 이상 단위로 장려금 신청

※2019년 5월10일 이후 신규참여 기업부터 적용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은 2019년 5월10일 이전 참여기업이 청년 채용해 신규 신청하는 경우도 똑같이 적용

자료: 고용노동부

/뉴시스

고용부는 아울러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 당해연도 지원 인원의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신규 성립 사업장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한 인원

만큼 지원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설연도에는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는 3명,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헤드헌팅 시장, 경력 3~5년차에 '러브콜'

선호하는 직무 '마케팅·광고기획'

헤드헌팅 시장에서 기업들의 러브콜이 집중되는 시기는 경력 '3~5년차'였으며, 가장 선호하는 직무는 마케팅·광고기획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는 올해 상반기 잡코리아에 등록된 헤드헌팅 공고 17만 3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헤드헌팅 러브콜을 가장 많이 받는 연차는 △3년~5년차 미만으로 전체 공고의 29.6%가 집중돼 있었다. 이어 △5년~7년차 미만의 인재를 찾는 공고도 21.5%로 높게 나타났으며, △7년~10년차 미만(13.4%) △1년~3년차 미만(12.7%)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10년~15년차 미만(10.3%), △15년~20년차 미만(2.5%), △20년차 이상(0.7%) 등 연차가 높아질수록 헤드헌팅 기회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헌팅 러브콜 많은 직무는?

※2019년 상반기 헤드헌팅 채용공고 빅데이터 분석, 자료: 잡코리아



헤드헌팅 채용공고가가장 많았던 직무는 '마케팅·광고기획 분야'가 응답률 10.5%로 10건 중 1건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획·전략·경영(8.9%) △응용프로그래머(8.3%) △재무세무·IR(6.5%) △생산·공정관리·품질관리(5.8%) △무역·해외영업(5.5%) △영업관리·영업기획(5.5%) △인사·노무·교육(5.4%)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용수 기자 hys@

이대서울병원 16일 방광·골반 음악치료 강좌

이대서울병원이 오는 16일 오후 3시 지하 2층 대강당에서 '건강한 방광을 위한 스트레스 아웃 음악치료'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방광과 골반의 만성 통증, 과민성 방광, 요실금, 만성 방광염 등 스트레스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는 만성 방광질환의 관리와 예방,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음악치료에 대해 윤하나 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사진)와 김미



선 토마스 심리상담연구소상담사가 각각 강의한다.

50세 이상 방광 건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지만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당일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만 진행한다.

/이세경 기자

한미약품, 경구용 항암신약 임상3상 결과

'오락솔' 기존보다 효능 우수, 부작용 ↓

FDA에 신약허가 사전미팅 신청키로
신경병증 기준약 57%→17%로 줄어

한미약품이 개발한 경구용 항암신약 '오락솔'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기존 정맥주사용 항암제보다 효능이 우수하고 주요 부작용 발생 빈도가 획기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약품 파트너사 아테넥스는 7일(현지시간) 오락솔 임상 3상의 핵심 연구 결과(1차 유효성 평가 목표 달성)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약허가 사전미팅(Pre-NDA Meeting)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오락솔은 정맥주사용 항암제 파클리탁셀을 경구용으로 전환한 혁신 항암신약으로, 한미약품이 개발한 플랫폼 기술 '오라스커버리'가 적용됐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1년 아테넥스에 오락솔을

기술수출 한 바 있다.

아테넥스는 총 402명의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두 집단으로 나눠(오락솔 265명, 정맥주사용 항암제 137명) 임상 3상을 진행했다.

지난 7월 25일까지 분석된 임상 결과에 따르면, 오락솔은 1차 유효성 평가지수인 ORR(객관적 반응률)이 36%로, 정맥주사용 투여군(24%)과 대비해 눈에 띄는 개선을 나타냈다. 확인된 응답자 그룹 중 오락솔 투여군의 DOR(반응 지속기간)도 정맥주사용군 보다 2.5배 길었다. PFS(무진행생존기간)와 OS(전체생존기간)도 오락솔 투여군이 정맥주사용군보다 길었다. 무엇보다 아테넥스는 파클리탁셀 정맥주사용 요법을 중단하는 주요 부작용인 신경병증의 발생률을 오락솔이 크게 줄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이번 임상 결과를 보면, 정맥주사용 환자의 57%에서 신경병증이 나타났으나, 오락솔 투여군에서는 17%대 수

준이었다. 또 정맥주사용 환자의 8%에서 3기 신경병증이 나타났으나 오락솔 투여군에서는 1% 수준이었고, 탈모와 관절통, 근육통도 더 적게 나타났다.

또 기존 정맥주사용 항암제는 정맥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 등으로 사전 치료를 받은 후 병원을 방문해 투여해야 하지만, 오락솔은 사전 치료 없이 집에서 경구로 자가 투여가 가능해 편의성이 높아 시장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다만, 호중구감소증 발생 수준은 두 그룹이 비슷했으며, 오락솔 투여군에서 4기 호중구감소증과 감염이 약간 더 많이 나타났고, 위장관계 부작용은 오락솔이 더 많았다.

루돌프 칸 아테넥스 CMO는 "아테넥스는 빠른 시일 내에 NDA를 준비하는 한편, 오락솔의 적응증을 확대하고, 바이오·면역항암제 등과의 병용 연구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le@

한성대, 12일까지 창업캠프 교육생 모집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는 12일까지 '한성공학 TURN-UP 창업캠프'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내달 개최되는 제15회 한성공학경진대회 참가자 150여명 중 35명을 대상으로 대회 출품 아

이템을 창업아이템으로 발전·전환시켜 학생들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업캠프는 8월 29일~30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파주시 소재 흥원연수원에서 열린다.

/한용수 기자



한성대 전경.